

“주요국 양적완화, 국내 저물가 원인”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국내물가 영향 보고서

“4개 주요국 증권 보유액 32% 늘면 국내 소비자물가 0.2%p 하락”

“미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영향이 가장 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국내 저물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 남민호·장재욱 과장, 강규휘 조사역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지표로 양적완화를 반영하는 증권보유액 합계를 이용했으며, 추가적으로 개별 중앙은행의 증권보유액과 장기금리 평균치를 활용했다. 표본기간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자산매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2009년 1월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양적완화 종료지점인 2014년 12월까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준·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영란은행의 증권보유액 합계 증가율이 32.0% 늘어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개월 동안 0.2%포인트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201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최



대세는 전기차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에너지 플러스 2016'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친환경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근에는 1% 내외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그간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증권보유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이들 국가의 장기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4개 주요국 중앙은행의 2008년 말 대비 2015년 말 증권보유액 증가규모는 미 연준이 3조7000억달러(755.9%), 일본은행 2조1000억달러(294.9%), ECB 1조1000억달러(671.6%), 영란은행 585억달러(32.7%) 등이다.

같은 기간 장기금리(국제 10년물 기준)는 4개 주요국 평균 기준 2.3%에

서 1.2%로 1.1%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유입을 통해 통화강세를 유발, 원화기준 수입물가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증권보유액 합계 증가율이 한 단위 표준편차(32.0%)만큼 높아지면,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해당 월에 전년동월대비 1%포인트 가량 떨어지고 이후 2개월 동안 하락에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개월에 걸쳐 0.2%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다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소폭의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국 장기금리 평균 수준이 0.5%포인트 하락하면 원화 환율은 해당 월에 미 달러화 대비 2.5%포인트 하락하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이후 0.2%포인트 하락했다.

4개 주요국 중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미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운용은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및 국내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ECB의 경우 환율 변동률은 하락시켰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는 다소 불확실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9월 주요은행 가계대출 3.8조 ↑

증가세 다소 둔화... 우리·기업은행 주담대 감소 영향

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주인인 우리은행과 KB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각각 약 9000억원, 1500억원 줄어든 영향이라는 점에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엔 다소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9월 6대 주요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기업)의 가계대출 잔액은 521조6371억원(잠정)으로 전달(517조8489억원)보다 3조7882억원 늘었다. 8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6조2104억원 증가, 올 들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1월 8069억원, 2월 1조923억원, 3월 2조5322억원, 4월 3조75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5월과 6월 각각 5조1807억원, 5조3851억원 늘었다가 7월 증가액은 4조5159억원에 그쳤다.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작아진 영향이다. 6대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4조5990억원으로 전달 대비 3조941억원 늘었다. 이는 전

년 동기 증가폭(4조3824억원)보다 약 1조2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보면, 1월 1조3308억원을 기록했지만 수도권에서 우선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2월 증가액은 8460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3월 2조1629억원, 4월 3조2066억원, 5월 3조5421억원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이후 6월 증가액은 3조1771억원으로 나타나 증가세가 꺾이는 듯했지만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비수기인 7월 증가액이 외려 4조2019억원으로 올라갔다. 이후 8월에는 3조9882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6대 은행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줄어든 곳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2곳 뿐이었다.

특히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754억원 감소했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달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 8월 이후 3년 만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 쪽에 쏠려있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비중을 늘렸다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농협은행 올해 당기순손실 1527억”

이개호 “지주 분리 후 영업이익 절반 축소·부실채권 증가”

농협은행이 지난 2012년 금융사업 지주회사 분리 이후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줄고, 부실채권 비율이 일반은행의 두 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5일 농협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 수익현황 및 부실채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경영실적 향상이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개한 ‘농협은행 수익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농협은행의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는데 영업이익은 2012년 9452억원에서 지난해 4903억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역시 ▲2012년 3946억원

에서 ▲2015년 1763억원 ▲올해는 -1527억원으로 손실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부실채권(고정이자 여신) 역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증가 현상을 보면 ▲2012년 2조6296억원 ▲2015년 4조2014억원 ▲2016년 5월 현재 4조3677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 비율도 2012년 1.76%에서 지난해 2.27%까지 증가했다.

이개호 의원은 “금융지주 분리로 전문성을 강화하라고 했더니 한치 앞을 못 보는 투자, 공격적인 영업으로 오히려 부실을 키우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은 조신해준 여신을 줄이는데 농협은행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여신을 늘려가지고 부실급증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내년부터 ‘보호무역주의 성향’ 강해질 듯

LG경제연구원 ‘경제전망’... 미국서 시작, EU탈퇴,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확대

1990년대 불어닥친 글로벌화가 멈추고 2017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0년 200건에 불과했던 수입규제조치가 올해 300건을 넘어서는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보호무역주의는 유럽 국가들의 EU탈퇴 이슈와 중국과 미

국의 무역마찰 등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두 대선 후보 모두 자국보호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클린턴 후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TPP 등 재협상 또는 무효화를 주장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칭하는 등 강력한 보호주의 공약을 제시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경기하강기와 신정부 출범이 맞물릴 경우 강력한 무역규제를 취했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내년 규제 강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테러 확대와 브렉시트 결정으로 유럽연합(EU) 체제에 비판적인 극우정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헝가리 등 난민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영국을 선례로 EU탈퇴를 공론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EU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갈등 확대가 교역조건 차별화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역시 지난 8월 미국산 철강에 48.5%라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등 미국과 보복무역을 펼치고 있으며 인도 등 신흥국은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비관세 장벽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반한감정 확산에 따른 한국 소비자 수요 저하 등이 우려된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품목이 제조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시스

세계 우수기업이 선택한 입지조건!!

입주기업 | OCI(주), OCISE(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솔베이실리카(주), (주)ECS, 한국가스공사, 군산도시가스(주)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名品 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지구 산업단지(1공구) 지원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고

1. 공급대상토지(지원시설용지)현황 및 공급방법

공급용도	필지수	면적(㎡)	분양가격(원)	건폐율	허용용적률(%)	최고층수	공급방법
지원시설용지	13	29,899	세부목록참조	60%이하	250%이하(기준), 300%이하(허용)	5층 이하	수의계약

* 공급대상토지 필지별 세부내역은 홈페이지(http://www.smgic.kr) 공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 일정 및 장소

구분	분양 계약체결	입주 계약신청
일정	2016. 10. 10.(월)~2017. 03. 23.(금) 10:00 ~ 17:00	2016. 10. 10.(월)~2017. 03. 23.(금) 10:00 ~ 17:00
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북로 466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전라북도청 새만금투자지원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상기 일정이 변경될 시 홈페이지(http://www.smgic.kr)에 게시 합니다.

3. 신청자격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재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한 경우는 입주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유의사항
신문 공고내용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재하였으므로 공급대상토지 목록,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http://www.smgic.kr)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분양마케팅부(063-450-9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5

KFRI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